

# KT 'M&A 운명의 週'... 합산규제 향방 오늘 판가름

오늘 국회서 관련 법안심사 논의  
여야 입장차... 합의점 도출 난망  
내일은 '아현지사 화재' 청문회  
황창규 거취·채용비리 등 도마

KT가 급주 국회 법안소위, KT 청문회 등의 주요 현안이 예정돼 국회의 움직임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16일 과기정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안건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이다.

이 중 KT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은 단연 유료방송 합산규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서울 종로구 광화문KT사옥. /뉴스시스

인터넷방송(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제를 말한다. 2015년 도입됐으며 3년 후 사라지는 일몰을 전제조건으로 시행돼 지난해 6월 자동 폐지·일몰됐다.

합산규제 재도입에 관해 과방위는 여야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16일 회의가 열려도 이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과방위는 법안 안건 조율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달 예정된 법안 1소위와 법안 2소위를 모두 연장

한 바 있다.

국회의 연일 파행에 따라 KT를 비롯한 유료방송 업계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의 M&A가 급진전될 수도 있고 아예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사업자인 넷플릭스, 디즈니 등이 국내 총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뭐라도 결단이 내려져야 사업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와 합쳐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0.68%를 차지하고 있는 KT는 이번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따라 사업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KT 스카이라이프 분리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KT는 "유료방송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조희 공시 요구에 답변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KT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KT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한 청문회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현안은 KT 화재 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이지만 황창규 KT 회장의 거취, 채용 비리 문제 등이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KT는 청문회를 앞둔 지난 12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KT의 움직임에 대해 청문회에 앞서 황 회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여야 공방 등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 또 다시 파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청문회는 날짜가 여러 차례 조정된 바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전경련, 韓-日관계개선 진단 긴급 좌담회

정재계 지도자 교류강화 등 대안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전경련은 15일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고 한일간 민간 차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경련은 한일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데 대해 근본적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좌담회를 마련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등 기업인과 석학들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이날 좌담회에서 한일간 정치·외교관계 조기 정상화 해법으로 정치·재계 지도자 교류를 강화하고, 정부와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주최, FTA & 글로벌 비서관 (A)세토모리 후원: K 기업인 (A)세토모리 후원: K

기업이 재단을 설립하는 등 행동에 나서 법률적 화해를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일본 학계를 대표해 강연했다. 한국 정부가 사법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결책으로는 방지와 판결, 화해 세가지 제시했다. /김재웅 기자 juk@

## '카카오 i'로 호반건설 아파트 똑똑해진다

카카오-호반건설 홈IoT 개발 협약

카카오가 호반건설과 손잡고 홈 IoT 기술 개발에 나선다. 양사는 15일 호반건설 본사에서 카카오 김태빈 AI사업 총괄이사, 호반그룹 김대현 미래전략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호반건설의 호반씨 및, 베르디움 아파트에 카카오의 통합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i'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이 빌트인으로 설치된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집 안에서 IoT 및 각종 가전제품 제어가 가능해진다.

특히 대화형 스마트홈 서비스를 통해 음성 명령만으로 냉난방과 조명, 엘리베이터 호출 등 다양한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미니를 이용해 "거실에 에어컨 켜줘", "부엌 조명 어둡게"

계", "엘리베이터 불러줘" 등과 같이 대화하듯 명령하면 이에 맞춰 작동되며, '카카오홈' 앱 설치 및 연동 후 카카오 톡플러스친구를 통해 메시지로도 제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멜론, 날씨, 일정관리 등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가 스마트홈 서비스와 연동돼 입주자 편의가 향상될 예정이다.

카카오 김태빈 AI사업 총괄이사는 "이번 호반건설과의 제휴를 통해 AI 기술과 스마트홈 영역의 접점 구축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i를 기반으로 주거 공간의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2017년 포스코건설, GS건설에 이어 지난 3월 HDC현대산업개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주요 건설사들과 함께 스마트홈 생태계 확산에 나서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CJ의 창업 오디션... '프로덕트 101' 2기 모집

시존1 기업 평균 매출 105% 증가  
설립 7년 내 창업·중소기업 대상  
예능프로 PPL·해외진출 등 지원

CJ그룹의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젝트 '프로덕트 101'이 시즌 2를 맞는다.

CJ그룹은 오는 5월 2일까지 '2019 프로덕트 101' 참가기업 모집을 진행하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프로덕트 101'은 CJ그룹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함께 진행하는 창업·중소기업 발굴·육성 프로젝트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발해 사업역량 강화 교육, 국내외 판로 확대, 해외진출 지원 등을 거친 뒤, 사업 성과와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1개의 기업을 선발한다. Top 11에 선정된 기업은 상품 특성에 맞게 CJ ENM 방송 PPL, 올리브영 입점 기회 등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마케팅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 시행 첫 해에도 지난 2월 '프로덕트 101' Top 11에 선정된 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105% 상승했으며, 총 15억원의 해외 수출 실적에 투자 유치금액은 약 37억원에 달하는 등 우수



CJ가 '2019 프로덕트 101'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CJ그룹

한 성과를 나타낸 바 있다. 현재는 CJ ENM 올리브 채널의 예능 프로그램 '마음에 들어' PPL, 올리브영 온·오프라인 입점 등 후속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CJ그룹은 '프로덕트 101'을 올해는 더욱 발전시켜, 참가 기업 수를 확대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서류심사를 통해 먼저 200개의 기업을 선발한 후, 오는 5월 유통 관련 교육과 품평회를 거쳐 국내외 판로지원 기업 101개를 선정해 각 제품 특성에 맞는 유통채널을 골라 시장가능성을 검증한다.

유통 채널은 기존 CJ ENM 오쇼핑부문의 TV홈쇼핑 방송, 올리브영 매장에 이어 CJ ENM 오프라인 매장인 '스타일 온어어', CJ ENM V커머스와 C커머스, 올리브영 온라인몰로 확대하고, 유통채널 별 지원 기업 수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중간평가 기능을 하는 'CJ 유통

연합 품평회'는 '셀렉션 데이'로 바뀐다. 단순히 MD들이 제품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고객평판 참여를 통해 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만듦에 예정이다. 또 유통·마케팅 관련 강연회와 MCN 크리에이터들의 토크콘서트 등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개최해, 작은기업과 소비자 간 접점을 확대하는 페스티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뷰티, 리빙, 패션, 푸드, 헬스&아웃도어, 키즈 분야 제조업체 중 설립 7년 이내인 기업으로,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재훈 CJ주식회사 상생혁신팀장은 "올해는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각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작은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에이스침대, 롯데카드와 '좋은잠 패키지' 프로모션

에이스침대는 베딩세트를 증정하는 '좋은잠 패키지'에 롯데카드 캐시백 혜택을 더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5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이번 프로모션으로 본격적인 이사·후수철을 맞아 침대 세트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캐시백 혜택을 활용해 고객들이 기존에 구매하려는 가격 대비 높은 사양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좋은잠 패키지'는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로 구성된 침대 세트를 LQ(라지퀸) 이상의 사이즈로 구매하면 베딩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다.

에이스침대 대리점에서는 '에이스침대 스페셜 롯데카드'를 이용해 침대 세트 결제 시 캐시백과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에이스침대 스페셜 롯데카드'는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9만 5000원 캐시백 혜택과 24·36개월 장기 무이자 할부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배현미 기자